



## 제책공정은 사전에 수익 고려해야

수익적이고 효율적인 제책 공정은 자동화 및 준비작업이라는 2가지 사안에 의존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열악한 준비작업을 만회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러한 준비작업은 인쇄물이 디자인되는 아주 초반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소규모 고속 상업 인쇄사에서의 제책 및 마감 공정은 프리프레스 및 제작 시스템에 자리를 내 주었다. 재래식 판형 인쇄를 위해서든 디지털 인쇄를 위해서든 상관없이 디지털 프리프레스와 디지털 출력은 디지털 작업흐름에 있어 더욱 공고히 연계되어 왔다. 제책은 디지털 작업흐름의 최종 결과물을 기다리면서 매장의 뒷편을 차지하게 되었다. 제책이 인쇄 공정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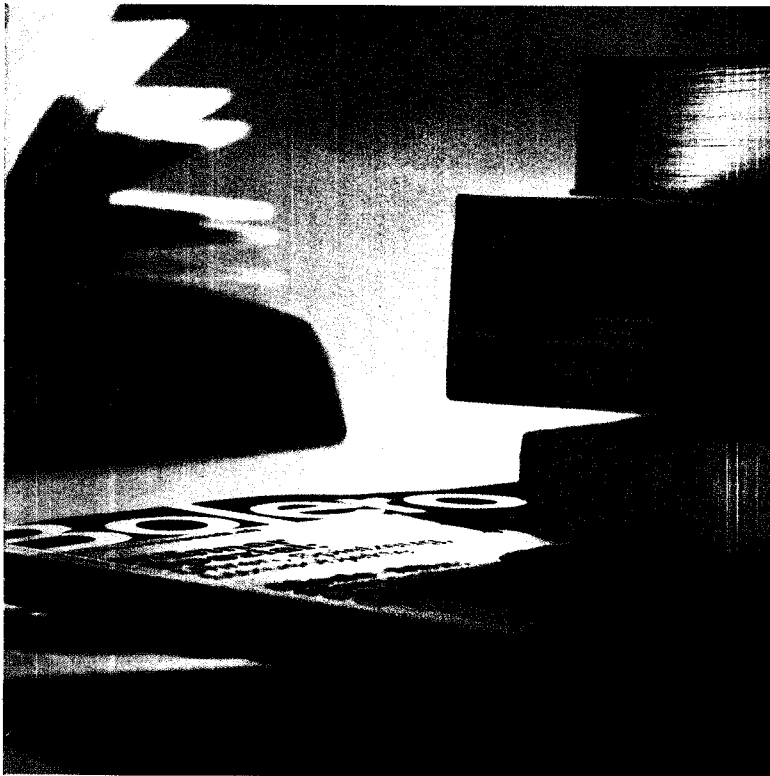
실제로 대부분의 인쇄물을 제작함에 있어 아주 필수적인 단계이다. 또한 이것은 주요 수입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급속 인쇄 톱 100' 회사들은 제책 및 마감 공정을 통해 총 매출의 약 10%를 달성하였다. 프랜차이즈 인쇄 매장

들은 제책 및 마감 수입이 총 수입의 8%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금년도 '톱 100' 전체 매출인 5억1300만 달러 및 프랜차이즈 매출 합계 17억 달러 중 매우 의미 있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상위로부터

인쇄작업은 제책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인쇄업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 자주 그들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자기 고객들에게 이것을 알려주



는 것에 실패한다. 그 대신 그들은 꼭 필요한 수정을 하기 위해 어설픈 디자인된 부분들과 씨름을 하곤 한다. 또한 때론 추가 작업에 대한 요금청구도 있어 버린다. 만약 인쇄업자가 고객에게 인쇄뿐만 아니라 제책에도 적합한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할 시간을 갖는다면 대부분의 골치 아픈 일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인쇄업자들이 자기 고객들로 하여금 주문내역이 보다 양호한 상태로 전달되도록 교육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지만, 이를 시도할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다.

‘피치핏 프레스’는 디자이너 및 창작가를 위한 광범위한 종류의 서적과 교육 자료를 출판한다. ‘피치핏’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클라우드미 맥큐’의 글에 의하면, 디자인 단계에서 제책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몇 가지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그것들은 단순 명쾌하지만 디자인 작업이 실행될 때는 자주 무시되곤 한다. 그것들 중 일부를 정리해 보자.

- ▶ 알맞은 재단 사이즈를 정하라. 다시 말하면, 8.5×11인치 페이지 위에 달랑 명함 하나만 올려놓아서 안 된다.
- ▶ 끝선물림 재단 여유분을 제공하라. 삽화가 페이지 끝선을 넘어서는 경우 이미지를 재단 끝선보다 크게 해야 함을 고려하라.
- ▶ 끝선에서 물러서라. 삽화가 끝선에 가깝게 있을수록 재단 에러로 인해 해당 삽화가 잘려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 인쇄 사양을 준수하라. 인쇄업자들은 이를 자기 고객에게 제공하여 그들이 이것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사양에는 접선, 끝선물림 재단, 인쇄면 배열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의도하는 제책방식을 고려해 디자인하라. 접지, 중철, 케이스 또는 완성 제책, 링 제책, 그리고 코일 제책 각각은 모두 다른 디자인 요건을 갖고 있다.

제작에서부터 제책에 이르기까지 부드럽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알맞게 준비하려면 분명히 더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당신은 그 핵심을 알게 되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는 오래된 컴퓨터 약어인 GIGO, 즉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

이상적인 JDF(업무 정의 형식)의 세계에서는 인쇄 과정이 착수부터 종결까지 완전히 자동화될 것이다. 인쇄 업무는 웹사이트에서부터 견적, PDF 제출, 제작일정 잡기, 제작, 마감에 이르기까지 매끄럽게 흐를 것이다. 만약 소규모 고속 상업 인쇄업자들의 세계가 그와 같이 자동화된다면 아주 좋을 것이다. JDF가 정말로 인쇄업계 전반에 걸쳐 구축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업계에 실제로 침투하기는 아직 먼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혀 침투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PDF 업무흐름이 표준이며 이것은 통상적으로 제책 단계에서 멈춰진다. 분명히 도입단계에서부터 JDF 사업표준을 지원하기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서 오늘날에 가용한 제책 장비가 있지만, 지금 당장 대부분의 소규모 고속 상업 매장에서 이것들을 만나지는 못할 것이다.

## 효율적인 제책공정

### 현실 체크

지난 가을에 출판된 가장 최근의 'NAQP 제책 및 마감 연구서'는 일부 인쇄업자들이 제책 공정에서 진정한 자동화 및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몇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약 39%의 응답자들은 자기들의 소책자 제작 공정이 기계식 접지나 기계식 정렬,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수작업 취합 및 스티칭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도 되었다.

오직 35%만 컴퓨터 제어/자동화 절단기를 보유하고 있다. 8%를 넘는 인쇄업자들은 격음줄 작업을 위해 활판 인쇄기를 사용해왔으며, 거의 25%는 숫자 작업을 위해 활판 인쇄기를 사용해 왔다. 모든 완성 제책은 수작업으로 진행 되어왔다.

이러한 장면이 바뀌고 있는지, 또한 소규모 인쇄업자들이 더더욱 디지털 출력에 관여하게 되고 또한 그것들에 수반되는 일체형(in-line) 마감 처리능력이 제공됨에 따라 몇몇 경우에는 아주 신속하게 변화되고 있는지는 다소 회의적이다. 자동화된 완성 제책기, 스티칭 기계, 재단기, 기타 등은 거의 모든 제작용 디지털 장비에서 가능하다.

반면, 분리형(off-line) 제책 장비는 컴퓨터 제어 및 터치 스크린 운영을 추가하여 더욱 자동화되고 있다.

### 일체형 또는 분리형?

거의 모든 제책 단계가 일체형이나 분리형 둘 다에서 수행될 수 있다. 각각에는 뚜렷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 일체형 마감작업은 매끄러운 접지, 스테플 작업, 펀치 작업, 소책자 제작 등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일체형 장비는 다중 재고를 처리할 수 있거나 또는 오프셋 출력물의 급지 및 정렬 역시 처리할 수 있다.

일체형 마감처리는 디지털 출력 장비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인쇄 매장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다수의 출력 장비에서 일체형 처리능력이 필요하게 된다면 일정부분 비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일체형의 불리한 점은, 만약 어느 마감 장비가 고장 나게 된다면 모든 기계의 가동이 중단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디지털 제작 인쇄업자들은 모든 마감 옵션이 끝자락에 걸려 있는 경우 엄청난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분리형 제책 장비 일부는 오프셋이든 디지털이든 상관없이 때론 복수 장비의 출력물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특정 출력 장비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만약 분리형 제책 장비가 고장 난다 하더라도 오프셋 인쇄기나 디지털 인쇄기는 계속해서 인쇄물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새로운 제책 장비는 더욱 간편하게 작동하고 더욱 효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동화 기능 탑재를 뽑내고 있다. 신형 완성 제책기, 접지기, 중철 스티치 기계, 재단기 및 이와 유사한 기계들은 터치스크린 운영 및 수동 설정을 대체한 서보 모터를 자랑하고 있다. 향후의 사용을 위해 업무들이 프로그램 되고 또한 설정이 저장될 수 있다. 효율적으로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 운영자가 습득해야 할 기술은 줄어들었으며 또한 결과물은 일반적으로 더욱 일관되고 반복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소규모 고속 상업 인쇄업자에게 더욱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는 인쇄 매장에서의 업무 구성에 크게 좌우된다. 하이브리드 디지털/오프셋 환경에서는 분리형이 더욱 다용도일 것이며 혼합된 결과물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신속한 작업 전환, 디지털 단기 컬러가 업무 구성의 중요 부분이라면, 이 경우엔 일체형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 처음으로의 회귀

당신의 제책 공정이 어떻게 자동화가 되던 또는 그것이 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상관없이 마감작업은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맥큐가 언급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아마도 마감 공정을 고려하지 않은 당신의 파일 작성이 당신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작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어렵게 배웠을 것이다. 종이에 잉크를 먹이는 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출처 [www.quickprinting.com](http://www.quickprinting.com) (미국)

번역 박성권 기자 [vovsys@print.or.kr](mailto:vovsys@print.or.kr)